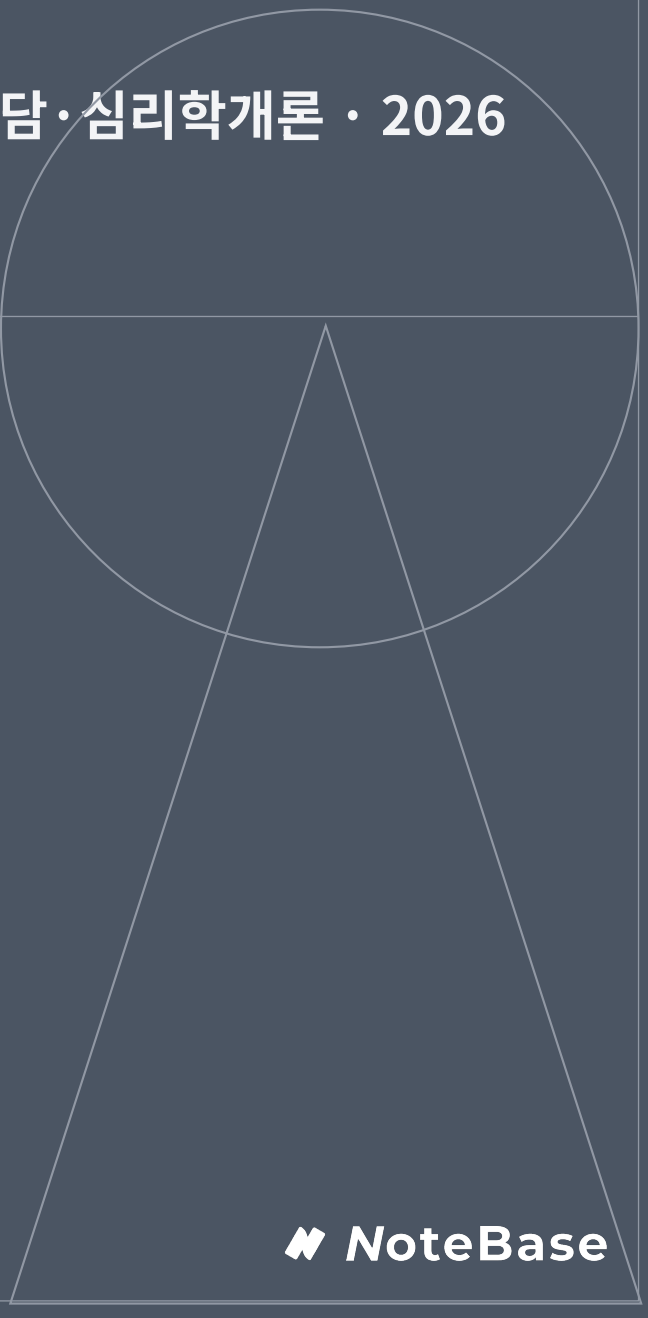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직업상담·심리학개론 · 2026

문 1. 직업카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화된 객관적인 검사이다.

② 내담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③ 상담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④ 직업카드를 '아주좋다', '좋다', '싫다', '아주싫다'로 분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직업카드 분류는 직업에 대한 선호와 그 이유를 탐색하는 **비표준화된 질적 평가 기법**이다. 정해진 실시 방식에만 묶이지 않으므로 상담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활용 방법을 변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직업카드 분류는 동일한 절차와 규준에 따라 점수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가 아니라 **비표준화된 질적 평가 기법**이다. 내담자가 어떤 직업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 흥미와 가치관을 탐색한다.

② X: 내담자는 직접 카드를 분류하고 선택 이유를 설명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반응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 선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③ O: 직업카드 분류는 활용 절차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상담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관심을 보이는 직업들을 다시 묶고 그 공통점을 이야기하게 하여 선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④ X: 일반적인 분류에서는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미결정 직업'의 세 범주**로 나눈다. '미결정'은 그 직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선호와 비선호의 강도를 각각 둘로 나눈 네 범주가 기본 분류 방식은 아니다.

NoteBase

문 2. 융(Jung)이 제안한 개념이 아닌 것은?

① 원형(archetype)

② 생활양식(life style)

③ 아니마(anima) / 아니무스(animus)

④ 내향성(introversion) / 외향성(extraversion)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생활양식은 융이 아니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개념이다. 개인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며 목표를 추구하고 삶의 과제에 대처하는 고유한 방식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형은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틀**이다. 집단무의식은 개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넘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의 층이며, 원형은 신화나 꿈에서 반복되는 상징과 이미지로 드러난다.

② X: 생활양식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개인이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삶의 과제에 대처하는 고유한 방식을 말한다. 아들러는 이를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방식과 연결하여 설명했다. 따라서 생활양식을 융의 개념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③ O: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융이 설명한 원형이다. 융의 이론에서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측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측면**을 뜻한다. 두 개념은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구별되는 무의식의 측면을 설명한다.

④ O: 내향성과 외향성은 융이 구분한 심리적 태도이다. 구분 기준은 **관심과 심리적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내향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 내적 세계로, 외향성은 사람이나 사물 등 외적 세계로 향하는 태도이다. 단순히 말수가 적거나 많은지만으로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다.

NoteBase

문 3. 직업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사례지도를 위한 상담 녹음이나 녹화는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내담자가 상담기록 열람을 요구하면 기록 전체를 내담자에게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내담자 복지를 위해서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④ 내담자와의 상담기록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상담기록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례지도는 상담자가 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아 상담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 목적이라도 녹음·녹화에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가 남으므로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례지도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② X: 상담기록의 열람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하되, **기록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과 내담자에게 미칠 해**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 내담자의 정보가 함께 있는 기록이라면 다른 내담자의 사적 정보는 제외하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열람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록 전체를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비밀보장은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 없는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

④ O: 상담기록에는 개인 신상과 상담 내용 등 보호해야 할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이는 상담 중의 발언뿐 아니라 기록의 보관·관리 과정에서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NoteBase

문 4. 다음에 해당하는 원리들을 가진 상담이론은?

◯ 공감 표현하기
◯ 불일치감 만들기
◯ 저항과 함께 구르기
◯ 자기효능감 지지해 주기

① 실존주의상담
② 동기강화상담
③ 수용전념치료
④ 게슈탈트상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동기강화상담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양가감정**을 다루어 내담자 스스로 변화의 이유를 찾도록 돕는다. '저항과 함께 구르기'는 저항을 논박해 꺾으려 하지 않고,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며 대화 방식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동기강화상담은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변화에 대한 동기를 끌어내는 상담이다. 제시된 네 원리는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 공감 표현하기: 내담자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반영적 경청으로 전달한다. 상담자가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내담자가 변화에 대한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 불일치감 만들기: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목표와 현재 행동 사이의 차이**를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직활동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 차이를 탐색하여 행동을 바꿀 이유를 찾게 한다.

○ 저항과 함께 구르기: 변화에 대한 반발을 **논쟁이나 강압으로 꺾으려 하지 않는다**. 내담자의 망설임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접근을 조절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현재의 문제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하는 뜻은 아니다.

○ 자기효능감 지지해 주기: 자기효능감은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현재 가진 강점을 확인하여 **변화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인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네 원리를 함께 사용하는 상담이론은 ②의 동기강화상담이다.

NoteBase

문 5. 다음에 해당하는 행동수정 기법은?

새로운 목표 행동을 한 번에 학습하기 어려울 때, 목표 행동과 유사한 초기 행동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① 모델링(modeling)
② 토큰 경제(token economy)
③ 행동조성법(shaping)
④ 체계적 둔감법(systematic desensitization)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목표 행동과 비슷한 초기 행동을 강화한 뒤, 점차 목표에 더 가까운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행동조성법**이다. 핵심은 완성된 행동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형성한다는 데 있다.

공통 해설

행동조성법(shaping)은 목표 행동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때, 목표와 유사한 행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목표에 점점 더 가까운 행동을 선택적으로 강화**하여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 기법이다. 강화는 어떤 행동 뒤에 주어지는 결과로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학습자가 할 수 있는 초기 행동을 강화한다. 그 행동이 자리 잡으면 강화 기준을 높여, 이전보다 목표에 더 가까운 행동이 나타날 때 강화한다. 이처럼 강화 기준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 행동에 도달하게 하는 원리이다. 지문의 '목표 행동과 유사한 초기 행동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행동조성법의 과정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미국경력개발협회(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NCDA)가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역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담자가 의사결정기술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ㄴ. 직업탐색 전략,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방법 등을 가르친다.
ㄷ. 진로계획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진로 선택과 실행 능력**을 함께 돕는다.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 활용과 구직기술 지도도 수행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진로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대안의 결과를 따져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ㄴ. O: 직업상담사의 역할에는 **구직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된다. 직업탐색 전략은 일자리 정보를 찾고 접근하는 데, 이력서 작성과 면접기술은 자신의 역량을 전달하고 취업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ㄷ. O: 직업상담사는 컴퓨터 기반 진로계획 시스템과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내담자는 직업의 업무와 요구 조건 등을 알아보고 그 정보를 자신의 진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ㄱ·ㄴ·ㄷ은 모두 직업상담사의 역할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7. 상담 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② 목표를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③ 목표 달성 시점을 지정하지 않는다.

④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상담 목표는 **달성 시점을 정해** 언제까지 어떤 변화를 이룰지 분명히 해야 한다.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실천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담자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막연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기보다 **수행할 행동과 수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목표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의욕을 높인다'보다 **'매주 채용 공고를 3건 찾아 기록한다'**고 정하면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③ X: 목표 달성 시점은 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지 정해야 그에 맞추어 실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시점에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④ O: 목표는 내담자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낳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로 나누어 설정한다.

NoteBase

문 8. 다음에 해당하는 윌리엄슨(Williamson)의 특성요인 진로상담 과정은?

내담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기초해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① 분석(analysis)
② 종합(synthesis)
③ 진단(diagnosis)
④ 예측(prognosi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검사결과에 기초해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윌리엄슨의 종합(synthesis) 단계이다.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내담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한다.

공통 해설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진로상담에서 종합(synthesis)은 수집된 자료를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담자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이다. 흩어진 검사결과와 정보를 함께 정리하면 내담자의 능력, 흥미, 강점과 약점 등이 드러난다.

지문은 검사결과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설명하므로 종합에 해당한다. 여기서 구별 기준은 **수집된 자료의 조직화**이다. 자료를 새로 수집하는 분석, 문제의 성질과 원인을 규명하는 진단, 앞으로의 경과를 내다보는 예측과는 수행하는 활동이 다르다.

NoteBase

문 9. 다음 대화에서 상담사가 사용한 상담면접 기법은?

내담자: (크게 한숨을 쉬며) 도대체 제가 얼마나 잘해야 팀장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상담사: 잘한 부분에 대해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군요.

① 해석
② 재진술
③ 명료화
④ 개방형 질문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담사는 내담자가 말한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을 **핵심 내용은 유지한 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했다. 이는 재진술에 해당한다.

핵심 풀이

재진술은 내담자가 말한 내용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상담자의 말로 다시 표현하는 기법이다. 내담자의 '얼마나 잘해야 팀장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에는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 상담사는 이를 '잘한 부분에 대해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군요'라고 말하여, **이미 표현된 바람을 되돌려 주었다**.

명료화는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기법이다. 이 대화에서는 인정받는다는 말의 의미나 구체적인 상황을 더 설명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표현한 핵심 내용을 다시 말해 주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NoteBase

문 10. 프로티언 경력(protean care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홀(Hall)이 제시한 개념이다.

② 경력관리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③ 일하는 방법(know-how)을 아는 것을 중시한다.

④ 개인이 만족하는 심리적 성공을 경력의 목표로 삼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일하는 방법(know-how)'은 전통적 경력에서 강조하는 업무 수행 지식이다. 프로티언 경력은 변화에 적응하도록 **학습하는 방법(learn-how)**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홀(Hall)이 제시한 개념이다. 프로티언 경력은 개인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주도하여 경력을 재구성**하는 관점이다.

② O: 경력관리의 책임과 주도권은 **개인**에게 있다. 조직이 정해 준 경력 경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경력을 선택하고 개발한다.

③ X: 프로티언 경력은 '일하는 방법(know-how)'보다 **학습하는 방법(learn-how)**을 중시한다. 기존 업무 지식을 갖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 업무와 환경에 맞게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계속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 O: 경력의 목표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에 따른 심리적 성공**이다. 승진이나 높은 보수 같은 외적 성취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를 이루며 느끼는 만족과 성취감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NoteBase

문 11. 진로가계도(career genogra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진로상담의 한 기법으로 질적 평가방법에 속한다.

② 남성은 원, 여성은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③ 가족의 현재 직업만 기록하게 한다.

④ 작성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진로가계도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직업과 관계를 살펴보며 내담자의 진로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는 **질적 평가방법**이다. 표준화된 점수보다 가족의 경험과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진로가계도는 가족 구성원의 직업과 관계를 도식화하고, 가족이 내담자의 직업관과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하는 기법이다. 검사 점수를 규준과 비교하기보다 **가족의 경험과 내담자의 해석**을 통해 진로를 이해하므로 질적 평가에 속한다.

② X: 일반적인 가계도 기호는 **남성은 사각형, 여성은 원**이다. 선지는 남성과 여성의 표시를 서로 바꾸어 설명했다.

③ X: 가족의 **현재 직업뿐 아니라 과거의 직업과 직업 변화**도 살펴본다. 가족의 교육 경험, 직업에 대한 태도와 기대, 역할모델의 영향 등을 함께 탐색하여 내담자의 진로선택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한다.

④ X: 오키시(Okiishi)가 제시한 기본적인 활용 절차는 **가계도 구성 → 직업 확인 → 내담자와의 탐색**의 3단계이다. 먼저 가족 구성과 관계를 그린 뒤 각 구성원의 직업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역할모델과 가족의 기대가 내담자의 진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따라서 이를 5단계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2. 직업적응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위스(Dawis)와 롭퀴스트(Lofquist)가 주장한 이론이다.

② 직업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에는 만족(satisfaction)과 충족(satisfactoriness)이 있다.

③ 직업가치는 성취, 편안함(comfort), 지위, 이타주의(altruism), 안전, 자율성의 영역으로 분류한다.

④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을 통해 직업적응과정을 설명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계획된 우연'은 **크럼볼츠 등의 진로이론**에 해당한다. 다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은 **개인과 직업환경의 상호 부합**을 이루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직업적응을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위스(Dawis)와 롭퀴스트(Lofquist)가 제시한 직업적응이론은 개인과 직업환경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개인의 능력은 직업환경의 요구에 부합하고, 직업환경이 제공하는 보상과 근로조건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직업적응은 이러한 **상호 부합을 이루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② O: 만족(satisfaction)은 직업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다. 충족(satisfactoriness)은 개인의 능력과 수행이 직업환경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직업환경 측의 평가**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과 고용주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만족하는 것은 구별된다.

③ O: 직업가치는 **성취·편안함·지위·이타주의·안전·자율성**의 여섯 영역으로 분류한다. 이는 개인이 직업생활에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욕구들을 묶은 것으로, 어떤 보상이나 근로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성취는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얻는 것, 자율성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이다.

④ X: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은 **크럼볼츠·미첼·레빈 등의 진로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탐색활동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만들거나 발견하고, 우연한 사건을 학습과 진로발달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직업적응이론은 계획된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욕구와 직업환경의 요구·보상 사이의 부합을 중심으로 직업적응과정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13. 갓프레드슨(Gottfredson)의 제한-타협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이란 개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직업적 대안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타협이란 진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으로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직업발달 단계를 살펴볼 때, 3단계(9☒13세)에서는 성역할을 지향한다.

④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진로포부가 어떻게 축소되고 조정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3단계(9☒13세)는 직업의 지위와 명성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기이다. **성역할 지향은 2단계(6☒8세)**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한은 자신의 자아개념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직업적 대안들을 배제하여 선택 범위를 좁히는 과정이다. 핵심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안의 제거**이다.

② O: 타협은 원하는 직업이라도 취업 기회나 교육·훈련 기회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대안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포기란 **원하는 특정 진로 대안의 포기·조정**을 뜻하며, 진로 선택 자체를 모두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3단계(9☒13세)는 **사회적 가치 지향 단계**이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위 수준이나 요구되는 능력·노력을 고려하여 대안을 좁힌다. 성역할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2단계(6☒8세)의 성역할 지향**에 해당한다.

④ O: 이 이론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자아개념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서 진로포부가 형성되고 좁아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대안을 배제하는 제한과, **현실적 접근 가능성에 맞추어 대안을 조정**하는 타협을 통해 진로포부의 축소와 조정을 다룬다.

NoteBase

문 14. 인지적 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진로의사결정의 구성요소에는 인지와 정서가 포함된다.

② 지식 영역은 자기독백, 자기자각, 통제 기술을 활용한다.

③ 의사결정기술 영역은 자기지식, 직업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④ 실행과정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분석, 종합(synthesis), 가치화, 실행 단계가 순환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CIP 이론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인지와 정서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사고뿐 아니라, 선택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기대도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CIP 이론은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인지와 정서가 함께 작용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직업정보를 비교하는 것은 인지적 활동이고, 선택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며 진로선택에 관여한다.

② X: 자기독백, 자기자각, 통제 기술은 지식 영역이 아니라 **실행과정 영역의 초인지 기술**이다. 초인지는 자신의 사고를 살피고 조절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중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문제해결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

③ X: 자기지식과 직업적 지식은 **지식 영역**을 구성한다. 자기지식은 자신의 흥미·가치관·능력 등에 관한 이해이고, 직업적 지식은 직업의 업무나 요구 조건 등에 관한 이해이다. 의사결정기술 영역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다룬다.

④ X: 의사소통, 분석, 종합(synthesis), 가치화, 실행으로 이어지는 CASVE 순환은 **의사결정기술 영역**에 속한다. 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대안을 이해하며, 대안을 넓히고 좁힌 뒤 우선순위를 정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때 '실행'은 CASVE의 한 단계이며,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조절하는 실행과정 영역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5. 진로 무질서(chaos) 이론의 체제 기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유인은?

◯ 체제가 특정 지점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 어느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인 상태로 움직여간다.
◯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지고 기회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① 진동 유인(pendulum attractor)
② 목표 유인(point attractor)
③ 우연 유인(strange attractor)
④ 패턴 유인(torus attractor)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체제의 움직임이 **하나의 특정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목표 유인(point attractor)의 특징이다. 정해 둔 목표에 지나치게 고착되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통 해설

목표 유인(point attractor)은 체제의 움직임이 **하나의 특정 지점이나 목표 상태로 수렴**하는 유인이다.
진로에서는 특정 직업이나 성취하려는 결과를 정해 놓고, 사고와 행동을 그 목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지문의 '특정 지점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과 '어느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인 상태로 움직여간다'는 설명은 모두 하나의 목표 상태를 향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목표를 고정한 채 그 실현에만 몰두하면 환경이 변해도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고, 목표 밖의 새로운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지고 기회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목표 유인에 고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6. 다음에 해당하는 수퍼(Super)의 진로발달과업은?

◯ 성장기에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쌓인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 자신에게 적합한 기초적인 수준의 일을 배우고, 관심이 가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배운다.

① 결정화(crystallization)
② 구체화(specification)
③ 안정화(stabilizing)
④ 공고화(consolidating)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을 명료화**하는 것은 결정화 과업이다. 관심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는 것도 이러한 진로 선호를 형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수퍼의 결정화(crystallization)는 자신의 흥미·능력·가치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여 일반적인 진로 선호를 형성하는 과업이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어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면서, 앞으로 추구할 진로의 방향을 잡는다.

제시문의 첫 번째 단서는 성장기에 쌓은 자기 이해와 직업 정보를 활용하여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단서인 기초적인 수준의 일과 관심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은,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를 연결해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두 단서는 모두 **일반적인 진로 선호의 형성**이라는 결정화의 기준으로 설명된다.

여기서는 구체화처럼 선호를 특정 직업으로 좁혀 선택했다는 점이나, 안정화·공고화처럼 취업 후 직업생활에 정착하고 지위를 굳힌다는 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필요한 능력을 알아본다는 표현도 그 직업에 이미 취업하여 정착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실용음악을 전공한 대학생의 홀랜드(Holland) 검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성격유형	R	I	A	S	E	C
표준점수	70	30	35	40	40	80

① 성격유형 간 변별성(differentiation)이 낮은 편이다.

② 성격유형 간 일관성(consistency)이 높은 편이다.

③ 성격유형과 환경의 일치성(congruence)이 높은 편이다.

④ 예술적, 문화적, 음악적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장 높은 두 유형은 관습형(C, 80점)과 현실형(R, 70점)이다. 두 유형은 홀랜드 육각형에서 **서로 이웃하므로 일관성이 높은 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변별성은 유형별 점수의 차이가 뚜렷하여 특정 흥미가 두드러지는 정도이다. C는 80점, R은 70점인 반면 나머지 유형은 30~40점으로 낮다. 따라서 **C와 R이 뚜렷하게 두드러져 변별성이 높은 편**이다. 여러 유형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날 때 변별성이 낮다고 해석한다.

② O: 일관성은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뜻하며, 주로 상위 두 유형의 육각형상 위치로 판단한다. 홀랜드 육각형은 R–I–A–S–E–C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C와 처음 R도 이웃한다. 이 학생의 상위 두 유형인 **C와 R은 인접한 유형**이므로 일관성이 높은 편이다. 점수 차이를 보는 변별성과 달리 유형 사이의 관계를 보는 개념이다.

③ X: 일치성은 개인의 성격유형과 전공·직업 환경의 유형이 맞는 정도이다. 실용음악 전공은 예술형(A) 환경에 해당하지만, 이 학생은 A가 35점으로 낮고 C와 R이 높다. 특히 가장 높은 C는 육각형에서 A와 마주 보는 유형이므로 **성격유형과 전공 환경의 일치성이 낮은 편**이다.

④ X: 예술적·문화적·음악적 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예술형(A)의 특성**이다. 이 학생은 A가 35점으로 낮고 C가 80점으로 가장 높으므로, 검사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예술형의 선호가 아니라 자료나 수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관습형의 선호이다. 실용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상 예술형 흥미가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8. 앳킨슨(Atkinson), 몰텐(Morten), 수(Sue)가 제시한 '소수민이 정착 과정에서 보이는 정체성 발달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부조화(dissonance)
(나) 저항과 몰입(resistance & immersion)
(다) 자기성찰(introspection)
(라) 순응(conformity)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다) → (나)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지배문화의 가치관을 따르다가 그에 대한 **의문과 갈등**이 생긴 뒤, 자기 집단을 긍정하고 지배문화에 저항하게 된다. **자기성찰**은 이러한 저항과 몰입의 태도까지 되돌아보는 단계이므로 그 뒤에 온다.

올바른 순서

(라) → (가) → (나) → (다)

(라) 순응: 지배문화의 가치관을 우월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자기 집단과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 지배문화의 기준을 본격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단계이다.

(가) 부조화: 기존 믿음과 어긋나는 경험을 하면서 지배문화를 긍정하던 태도와 자기 집단을 낮게 평가하던 태도가 흔들린다. 자기 집단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도 기존 평가가 남아 있어 **상반된 평가 사이의 갈등**을 겪으므로 순응 다음에 놓인다.

(나) 저항과 몰입: 앞 단계의 갈등을 거쳐 자기 집단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 문화와 정체성에 몰입한다. 지배문화에 대해서는 거부와 저항을 보인다. 지배문화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집단 중심의 평가**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부조화와 구별된다.

(다) 자기성찰: 자기 집단을 무조건 긍정하고 지배문화를 일괄적으로 부정하던 태도가 타당한지 되돌아본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몰입을 재검토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탐색하므로 저항과 몰입 이후에 놓인다.

문 19. 「진로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ㄴ.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ㄷ.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ㄱ

진로체험에는 **직업 현장에서의 대화·견학·체험뿐 아니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포함**된다.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ㄴ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ㄷ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전문인력 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 · 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NoteBase

문 20. 다음 스트롱직업흥미검사II(STRONG Interest Inventory II) 개인특성척도(PSS) 점수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척도명	업무유형	학습유형	리더십유형	위험감수유형
T점수	50	65	35	65

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②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혼자 일하는 것에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③ 직접 실습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편이다.

④ 책임자 역할을 맡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학습유형 65점은 직접 실습보다 **강의·독서 중심의 학문적 학습**을 선호하는 쪽이다. '직접 실습을 통한 학습을 선호한다'는 학습유형 점수가 낮을 때의 해석이다.

선지별 해설

개인특성척도(PSS)는 일하고 배우고 이끄는 방식 등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다는 사실 자체가 능력이나 성과가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며, 각 척도에서 어느 쪽의 특성을 선호하는지 읽어야 한다.

① O: 표의 위험감수유형은 65점으로 높은 편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활동을 선호하고, 낮을수록 안전하고 신중한 방식을 선호한다.

② O: 표의 업무유형은 50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낮은 점수는 혼자 일하는 쪽, 높은 점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쪽의 선호를 나타낸다. 50점은 **어느 한쪽에 뚜렷하게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③ X: 표의 학습유형은 65점으로 높은 편이므로 **강의나 독서를 통한 이론적·학문적 학습**을 선호한다. 직접 실습하며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는 학습은 이 척도에서 점수가 낮은 쪽의 특성이다. 따라서 선지의 '직접 실습을 통한 학습'은 '강의나 독서를 통한 학습'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표의 리더십유형은 35점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역할보다 **자신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책임자 역할을 맡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NoteBase